



소개

마스터 히브리스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

칼리버 178, 차세대 다축 투르비용

주요 특징:

- **3 축 투르비용:** 3 개 축을 통해 98%의 자세 범위를 보정하여 전례 없는 정확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
- **특허 출원 중인 새로운 구조:**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를 구성하는 189 개의 부품
- **극한의 가벼움:** 무게가 단 0.78g 에 불과한 3 축 투르비용
- **조각처럼 아름다운 실루엣:** 기요셰, 에나멜, 래커 등 '메티에 라르™' 마감을 더해 무브먼트 부품을 하나의 다이얼처럼 승화시킨 칼리버 178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히브리스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는 예거 르쿨트르가 약 2 세기 전부터 추구해 온 정밀함과 정확성에 대한 열정으로 탄생했습니다. 다수의 특허 출원을 마친 칼리버 178 의 3 축 투르비용 구조는 98%의 자세 범위를 보정하며, 예거 르쿨트르가 지금까지 제작한 투르비용 손목시계 중 가장 넓은 구동 범위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히브리스 라인의 새로운 시리즈인 히브리스 인벤티바의 출시를 알립니다. 섬세하게 마감된 42mm 플래티넘 케이스에 담긴 새로운 3 축 투르비용 칼리버는 기요셰, 에나멜, 래커를 포함한 메티에 라르™ 공예로 세심하게 마감 및 수공 장식되어 특별한 구조를 돋보이게 합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 기술적 혁신을 기리는 새로운 라인

2003 년, 예거 르쿨트르는 발명 정신과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히브리스 메카니카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컬렉션은 새롭게 재구성한 여러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시계에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4 년 처음 공개된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는 기존의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메티에 라르™로 재해석한 컬렉션으로, 인그레이빙, 에나멜링, 기요셰 등 매뉴팩처 내에 집약된 진귀한 예술적 수공예 기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제 예거 르쿨트르는 3 번째 히브리스 라인인 히브리스 인벤티바를 선보입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 타임피스에 탑재된 유일한 컴플리케이션은 그 하나만으로도 메종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독보적이며 혁신적인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칼리버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메종 내부에서 끊임없이 던진 질문과 치열한 탐구 끝에 탄생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수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대담한 아이디어들이 결국 실제 연구 단계로 이어지고, 이후 수년에서 때로는 수십 년에 걸친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매뉴팩처 내부에서도 오직 소수의 인원만이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엔지니어들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불가능해 보였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지금껏 이러한 실험 모델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메종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 콘셉트 피스로만 존재해 왔습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 시리즈는 프로토타입 칼리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년간의 치열한 검증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베일을 벗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이 혁신적인 결실은 언제나 고유 번호를 새긴 극소수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 타임피스는 *마스터 모델(modèle maître)* 원칙에 따라 향후 다양한 재해석의 바탕이 됩니다. 때로는 다른 컴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놀라운 칼리버를 갖춘 히브리스 메카니카(울트라 컴플리케이션)로 거듭나기도 하며,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적 감각을 더해 히브리스 아티스티카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차세대 다축 투르비용

투르비용은 포켓 위치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중력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포켓 위치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착용되는 특성상,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무브먼트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브먼트의 진동 시스템을 일정한 리듬에 따라 자체 축 주위로 회전시키는 투르비용은 이러한 중력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손목시계가 보편화됨에 따라, 위치메이커들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을 제어하는 데 있어, 다축 투르비용이 단일 축 투르비용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 년 예거 르쿨트르는 첫 번째 자이로투르비용을 공개하며 혁신적인 다축 투르비용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진동 시스템이 수평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1 세대 2 축 투르비용을 통해 다축 투르비용 분야의 선구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이후 출시된 각 세대의 자이로투르비용은 정확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2 세대는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케이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며, 3 세대는 반구형 헤어스프링을 탑재한 최초의 플라잉 자이로투르비용을 도입했습니다. 4 세대는 완전한 플라잉 구조를 실현하며 역대 가장 빠른 자이로투르비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 세대는 자이로투르비용과 콘스탄스포스 메커니즘을 결합하며 고도의 소형화를 완성했습니다.

약 80 년간 축적된 투르비용 레귤레이터 기술력을 집약한 마스터 히브리드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칼리버 178)는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3 축 투르비용 구조를 통해 기술적 진보를 이뤘습니다. 3 축 투르비용의 운동학적 메커니즘은 98%의 자세 범위를 아우르며 중력이 시계의 정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합니다.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는 동시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진폭(밸런스 휠의 앞뒤 진동), 위치, 파워 리저브에 관계없이 항상 동심원으로 진동하는 실린더형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했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라믹 볼 베어링으로 구동됩니다. 세 개의 티타늄 투르비용 케이스는 모든 자세를 지속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X, Y, Z 축을 따라 각기 다른 세 가지 속도(내부 케이스 20 초, 기준이 되는 중앙 케이스 60 초, 외부 케이스 90 초)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이 투르비용은 현존하는 4Hz 모델 중 가장 폭넓은 자세를 아우르며, 진동자의 정확성에 미치는 중력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혁신의 서막은 2004 년



자이로투르비용의 탄생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 모델은 출시 당시 이미 70%에 달하는 자세를 보정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2 년 동안 예거 르쿨트르는 투르비용의 초소형화는 물론 축의 기울기를 다각도로 연구해 왔으며, 그 결실로 극강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가 탄생했습니다. 대형 항공기가 난기류를 피해 비행하는 성층권의 '고요한 대기층'에서 영감을 얻은 이 모델은 0.783g 이라는 믿기지 않는 무게에 무려 189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계식 칼리버 전체 부품 수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예거 르쿨트르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예술적 장식으로 완성한 조형미의 정수

칼리버 178 은 기계적 메커니즘과 예술적 장식의 조화를 구현해낸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걸작입니다. 다이얼의 전유물이었던 장식 기법들을 배럴 커버부터 플레이트, 브리지까지 무브먼트 전체에 세밀하게 입히는 대담한 시도를 통해, 다이얼과 무브먼트의 경계를 허무는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이는 칼리버 그 자체를 숨이 멎을 듯 아름답게 움직이는 하나의 키네틱 아트로 거듭나게 합니다. 칼리버 178 에는 샌드블래스팅, 페를라주, 폴리싱, 플랫 폴리싱, 스트레이트 그레이닝, 리니어 브러싱, 서큘러 브러싱, 꼬뜨 드 제네브, 다이아몬드 폴리싱, 스네일링, 선레이 브러싱, 베벨링, 기요세, 래커링, 래핑 마감, 그리고 에나멜링에 이르기까지 총 16 가지의 다양한 장식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65 시간의 핸드 베벨링: 이처럼 정교하게 쌓아 올린 예술성의 깊이는 장인의 손길로 완성된 핸드 베벨링 디테일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정교한 수작업은 20 개의 브리지, 18 개의 케이지 부품, 11 개의 휠, 6 개의 메커니즘 부품 등 총 55 개의 개별 부품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무려 64 개에 달하는 내부 앵글은 극한의 정밀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리버 내부에는 솔리드 골드로 제작된 33 개의 부품이 탑재되어 그 가치를 더합니다. 플레이트와 브리지에 진귀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조립 시 까다로운 도전 과제로, 위치메이커에게 고도의 숙련도와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블루 에나멜로 수놓은 화려한 전면부: 시계 전면부의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무브먼트 플레이트에는 선레이 기요세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뒤, 투명한 블루 에나멜로 코팅했습니다. 오목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브리지는 디자인의 통일감을 위해 블루 래커로 채웠습니다. 또한 다이얼의



2 시와 10 시 방향에 시선을 사로잡는 2 개의 대형 배럴 커버 역시 인그레이빙 후 수작업으로 블루 래커를 입혀 전체적인 조화가 돋보입니다.

입체감이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유희: 장식의 미학은 두 개의 오프센터 다이얼 링으로 이어집니다. 시와 분을 표시하는 상단 링은 중앙의 오픈워크 구조를 통해 바늘축은 물론, 정교한 트윈 스프링 배럴까지 고스란히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6 시 방향의 3 축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를 감싸는 두 번째 오프센터 링에는 30 초(15 초 2 회)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서브 다이얼을 회전하는 작은 빨간색 화살표가 초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칼리버의 조각적인 설계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입체감이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유희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3 축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를 향해 있습니다.

케이스백 너머로 펼쳐지는 경이로운 광경: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을 통해 시계의 뒷면이 온전히 드러나 칼리버 178 을 지탱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소재의 견고한 브리지가 장착되었으며, 꼬뜨 드 제네브, 핸드 베벨링, 하이 폴리싱 등 전통적인 장식 기법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53 개의 루비 주얼이 화려함을 더하며, 화이트 골드와 스틸의 모노크롬 톤과 강렬한 대비를 선사합니다.

뒷면에서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를 지탱하는 하이 폴리싱 스테인리스 스틸 브리지는 예거 르쿨트르의 기념비적인 1946 년형 포켓 워치 투르비옹 브리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자이로투르비옹 브리지와 시·분침축을 지지하는 브리지에는 골드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내구성이 필요한 핵심 위치인 만큼, 훨씬 탄탄한 소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파워 리저브의 완벽한 조화: 높은 정확성을 보장하는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78 은 4Hz(28,800vph)로 작동하며, 72 시간이라는 놀라운 파워 리저브를 갖춰 3 일에 한 번만 와인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스 인벤티바의 명성에 걸맞게, 플래티넘 케이스의 절제된 우아함 너머에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폴리싱, 브러싱, 마이크로 블라스팅 마감의 조화는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매혹적인 빛의 유희를 만들어내며, 그 내부에 깃든 혁신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히브리스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

케이스: 플래티넘(950/1000)

크기: 42 x 16.15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8

기능: 시, 분, 초, 3 축 자이로투르비옹 아 스트라토스페르

파워 리저브: 72 시간

앞면 다이얼: 기요세 및 반투명 블루 에나멜 장식의 링 다이얼

케이스백: 투명

방수: 50m

스트랩: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작은 스케일 안감, 조절 가능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5306480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밸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외딴 계곡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위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 Watchmaker of Watchmakers™.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